

## 동아시아를 떠도는 한국 화교의 정체성 —『한중일보』를 통해 본 한국 화교의 국가 정체성

왕은미(王恩美)

### 1. 들어가는 말: '조국'의 딜레마

문득 이런 질문을 던져보고 싶다. 한국 화교<sup>1)</sup>에게 '조국'은 어떤 존재이며, 그들은 왜 '조국'에 매달려야만 했을까?

법무부 출입국관리국의 2000년도 통계에 의하면 한국에는 22,083명의 화교가 살고 있다.<sup>2)</sup> 이들 화교는 한국에서 막연히 중국인이라는 이미지만으로 연상되어왔다. 한국 화교의 조국 또한 막연히 '중국'이라고만 생각되어왔다. 한국 화교의 출신지를 검토해보면 90%가 산둥성(山東省)이며, 5%가 허베이성(河北省), 2%가 동북삼성(吉林省, 遼東省, 黑龍江省), 그리고 2%가 장쑤성(江蘇省)과 저장성(浙江省) 출신자로, 99%가 중국 대륙 출신인 것으로 나타났다(1995년 타이베이대표부 통계).

1) 이 글에서 다루고 있는 한국 화교의 범위에는 중화인민공화국 국적자는 포함되지 않는다. 한국 화교 인구는 『출입국관리통계연보』에 표시된 '거주' 자격의 중화민국(타이완) 국적자의 통계를 기초로 했다. 1992년 한국과 중화인민공화국이 국교를 수립하기 전까지는 중화인민공화국의 '거주' 자격자는 존재하지 않았고, 한국 화교도 1992년 이후 중화인민공화국으로 국적을 전환한 화교는 없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리고 1992년 이후에 중화인민공화국에서 온 중국인이 한국 화교와 공동체를 구성하기는 무척 힘들다고 보기 때문에, 이 글에서는 한국 화교의 범위에서 제외한다.

2) 출입국관리국, 『출입국관리통계연보』, 법무부, 2000, pp. 246~47.

한국 화교의 출신지로 보아 한국 화교는 '중국' 출신임은 분명하다. 그렇다면 한국 화교의 출신지인 '중국'은 어디인가? 더 정확히 말하자면 중화인민공화국을 뜻하는 것일까? 중국 대륙 출신인 한국 화교는 중화인민공화국 출신임을 의미하는 것일까? 하지만 거의 모든 한국 화교는 지금은 타이완으로 분류되는 중화민국<sup>3)</sup> 국적자이다. 중국 대륙 출신자이지만 타이완 국적을 소지한 한국 화교, 여기에 한국 화교의 '조국'의 딜레마가 도사리고 있다. 이 같은 '조국'의 딜레마는 1990년도 후반부터 한국 화교 사회에서 부상되기 시작한다.

1992년 한중 수교 이전의 시대를 돌이켜 보면 중화민국은 '자유중국'으로 상징되어 '중국'으로서 한국과 수교를 맺고 있었으며, 중화인민공화국은 한국의 적대국이었기에, 한국 화교의 국적이 중화민국인 것은 자연스런 역사적 결과인지도 모른다. 한국 화교 또한 중화인민공화국이 아닌 중화민국 정부를 지지하며 중화민국을 '조국'이라고 인식해왔다. 1949년 중국 대륙에 중화인민공화국이 설립되고 국공내전에서 패배한 국민당 정부가 타이완으로 옮겨가면서 '중국'에는 두 개의 정부가 존재하게 되었지만 한국 화교는 중화민국만을 '조국'으로 인식해왔다.

그러나 화교가 일방적으로 중화민국만을 지지하는 이러한 현상은 다른 나라에서도 쉽게 찾아볼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일본만 해도 1972년까지 일본의 공식적인 국교국이 중화민국이었지만 중화인민공화국의 적극적인 개입으로 일본 화교가 일방적으로 중화민국 정부만을 지지하는 일은 없었다.<sup>4)</sup> 1992년 중화인민공화국은 한국과

3) 이 글에서는 '중화민국'과 '타이완'을 구별해 사용한다. 전자는 1949년 이후 타이완을 통치하는 정부로서 정치적인 개념으로, 후자는 지역 이름으로 지리적인 개념으로 사용한다.

4) 永野武, 『在日中國人 — 歴史とアイデンティティ』(東京: 明石書店 1994), pp. 189~93.

국교를 수립해 '중국'을 대표하는 유일한 중국 정부로 한국에서 인정을 받았지만, 한국 화교가 중화민국을 지지하는 현상은 바뀌지 않았다. 한국 화교가 중화민국에 대한 태도의 변화를 보이기 시작하는 것은 1990년대 후반, 2000년도에 접어들면서부터이다.

이 글에서는 이렇듯 중화민국을 '조국'으로 인식해왔던 한국 화교의 국가 정체성 national identity을 검토하는 것을 주 목적으로 한다. 동시에 중화민국을 '조국'으로 인식하는 한국 화교의 국가 정체성에 어떠한 변화가 일어나고 있는지 또한 살펴보고자 한다. 보다 구체적으로 언급하자면 『한중일보(韓中日報)』를 통해 한국 화교의 국가 정체성이 어떻게 반영되어, 어떠한 변화를 보이고 있는가를 살펴보고자 한다. 단지 1978년 이전의 『한중일보』는 입수할 수 없었기 때문에, 이 글에서는 1978년부터 2001년까지를 분석 대상으로 삼았음을 밝히는 바이다. 그리고 끝으로 1990년대 후반부터 일어나고 있는 한국 화교를 둘러싼 환경의 변화가 가져온 정체성의 딜레마에 대해 언급하고자 한다.

장례식, 결혼식 등 한국 화교 사회에서 일어나는 행사를 화교들에게 알리는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한중일보』는 커뮤니티 신문의 성질을 띠고 있으나, 본국 뉴스를 화교에게 전달하는 역할도 겸하고 있다. 『한중일보』가 커뮤니티 신문인 것을 감안하여 거기의 기재된 한국 화교 사회의 기사를 통해 한국 화교의 정체성을 파악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 그러나 『한중일보』에 나타나는 한국 화교 사회의 움직임은 화교 지도층의 활동을 중심으로 하고 있다. 이 지도층이 중·장년층인 것을 생각한다면 한국 화교의 젊은 세대의 움직임을 『한중일보』를 통해 파악하기는 어렵다는 난점을 안고 있다. 이러한 난점을 감안하더라도, 『한중일보』는 한국 화교의 선행 연구가 얼마 되지 않는 현재의 시점에서 한국 화교 사회 내부 변동을 파악할 수 있는 귀중한 자료라 생각한다. 그러나 아직 분석 대상이 된

적은 없었다. 이 글이 한국 화교 연구의 새로운 방향을 제시할 수 있다면 더 바랄 게 없다.

한국 화교 사회의 유일한 신문인 『한중일보』는 4면으로 된 중국어 신문이다. 『한중일보』의 전신은 1953년 창간된 『중화시보(中華時報)』로, 1955년 재정난으로 폐간해 1957년 『한화일보(韓華日報)』로 재간되어, 1972년 현재의 『한중일보』로 이름이 바뀌었다.<sup>5)</sup> 한국 정부 수립 후 외국인 명의로 된 언론지 출판이 금지되었기 때문에 『한중일보』의 발행인은 한국인으로 되어 있으나 실질적인 신문의 제작은 한국 화교가 담당하고 있다.<sup>6)</sup> 현재 약 2,000부가 발행되고 있으며 한국 화교의 인구가 약 2만 명인 것을 감안한다면 『한중일보』를 구독하고 있는 한국 화교의 세대 수는 적지 않을 것으로 생각된다.

## 2. 한국 화교의 형성 배경

잘 알고 있을 것 같으면서도 사실은 잘 모르고 살아왔던 한국 화교의 존재, 본론에 들어가기 전에 우선 한국 화교가 어떤 역사적 배경을 거쳐 한국에 정착하게 돼, 어떠한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지 살펴보자.

화교가 조선에 이주해 화교 사회가 형성되기 시작한 것은 19세기 말부터이다. 1882년 임오군란(壬午軍亂)을 진압하기 위해 파병된 청나라의 군대와 동행한 군역 상인이 조선에 거주하기 시작하면서 화교 사회가 형성되었다.<sup>7)</sup> 이주 초기의 화교는 청나라의 국력을 배

5) 진유광(秦裕光), 「화교」, 중앙일보, 1979. 12. 12.

6) 박은경, 『한국 화교의 종족성』(한국문화연구원, 1986), pp. 179~80.

7) 진유광, 앞의 글.

경으로 세력을 확장해 나아갔다. 화교는 치외법권(治外法權)을 지닌 '대국의 국민'으로 그 위세는 당당했다. 그러나 1894년 청일전쟁의 패배로 인해 화교의 '대국의 국민'이라는 특권은 사라졌고, 조선인이 식민지로 전락하면서 조선 사람과 같이 일본의 지배를 받게 된다.

식민지 시대에 들어서 산둥성 출신의 화교가 급증한다. 당시 산둥성은 심한 기근에 시달리고 치안이 좋지 않아 마적떼들이 들끓고 있었다. 식민지로서 개발이 진행되고 있는 조선에 식량을 얻기 위해, 또한 신변 안전을 위해서 많은 화교들이 산둥성에서 만주 지역을 경유해서 조선에 이주해왔다. 그후 중일전쟁이 일어나 많은 화교가 귀국하지만 중일전쟁이 장기화되면서 군수 산업의 발달로 노동자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조선의 화교 인구는 다시금 증가하게 된다.<sup>8)</sup> 그 인구는 주로 조선 북부에 집중되어, 팔리(苦力)로 일컬어지는 노동자와 농민이 주류를 이루었다. 조선 남부의 화교는 주로 상업에 종사하고 있었다.<sup>9)</sup>

중전 후 조선은 남북으로 분단되어, 1945년 당시 조선 남부에는 12,848명의 화교가 거주하고 있었다.<sup>10)</sup> 미 군정기에는 외국인에 대한 규제가 사라져 화교는 중국 대륙과의 무역을 중심으로 경제력을 키워나갔다. 그러나 1948년 한국 정부 수립 후 외국인에 대한 규제 강화와 한국전쟁으로 경제적 기반이 무너져 화교의 경제력은 쇠퇴한다. 한국전쟁 이후에는 화교에 대한 규제가 더욱 강화되어 화교의 경제 활동은 더더욱 무력화되었다. 규제를 참고 견디다 못한 화교는 1970년대 중반부터 미국과 타이완으로 재이민을 떠나게 돼 화

8) 1942년에는 조선 화교 역사상 가장 많은 인구인 82,661명을 기록하게 된다. 조선 총독부, 『조선총독부통계연표』, 1942, pp. 17~25.

9) 総谷智雄, 「在韓華僑の形成過程—植民地朝鮮におけるエスニックマイノリティ—」, 『日本植民地研究』第9号, 1997, pp. 12~13.

10) 박은경, 앞의 책, p. 118.

교의 인구는 점차 줄게 된다. 1970년대에 3만 명까지 증가한 한국 화교의 인구는 현재 2만 명을 유지하고 있다.

1996년 타이완대표부의 한국 화교의 거주 지역 통계에 의하면 서울이 약 40%, 인천이 약 14%, 경기도가 약 6%로, 한국 화교의 약 60%가 수도권에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sup>11)</sup> 그외 한국 화교의 거주 지역은 부산이 약 11%, 대구가 약 6% 등으로 나타났다. 한국 화교의 직업과 관련한 1993년의 통계에 의하면 한국 화교 총세대의 약 76%가 음식업에 종사하고 있다.<sup>12)</sup> 음식점 대부분은 소규모의 중국음식점으로 한국 화교의 경제 세력은 결코 강하다고는 할 수 없다.

2만 명을 유지하는 한국 화교의 작은 인구에도 불구하고 한국에는 무척 많은 화교 학교가 운영되고 있다. 2001년의 조사에 의하면 유치원이 15개, 소학교(초등학교)가 27개로 전국 각 지역에 분포되어 있다. 중·고등학교는 모두 4개로 서울·인천·부산·대구에서 운영되고 있다. 주 2, 3시간의 한국어 수업 이외에는 중화민국과 똑같은 교과서를 사용하고 중국어로 수업이 진행되고 있다. 교육 내용은 중화민국 국내의 것과 별 차이가 없다. 정확한 통계 자료는 없지만 거의 모든 화교의 아이들이 화교 학교에 다니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어, 한국의 공립 학교에 다니는 화교의 자녀는 많지 않을 것으로 추정된다.

한국의 모든 화교 학교는 중화민국 계열의 학교만 존재할 뿐 중화인민공화국 계열의 학교는 존재하지 않는다. 일본의 화교 학교는 중화민국 계열과 중화인민공화국 계열이 동시에 운영되어왔지만 한

11) 華僑經濟年鑑委員會 編, 『華僑經濟年鑑』(臺北: 華僑經濟年鑑委員會, 1997), p. 323.

12) 華僑經濟年鑑委員會 編, 『華僑經濟年鑑』(臺北: 華僑經濟年鑑委員會, 1995), p. 346.

국 화교 학교는 중화민국 계열의 학교만 운영되어왔고, 한국 화교 사회에서도 오직 중화민국 세력만이 존재해왔던 것이다.

### 3. 중국은 오직 하나 중화민국뿐:

#### 『한중일보』를 통해 본 중화민국의 국가 이미지

중화민국은 자신의 국가 이미지를 어떻게 선전해왔고, 그것이 한국 화교에게 어떠한 이미지로 자리 잡아왔는지를 주목하지 않을 수가 없다. 그것은 바로 한국 화교의 국가 정체성 형성에 직접적인 영향을 끼치기 때문이다. 『한중일보』를 단서로 중화민국의 국가 이미지를 추적해보고자 한다.

1949년 12월 타이완으로 옮겨간 중화민국 정부는 중화인민공화국을 의식한 '반공 정책'이 국가의 가장 중요한 정책으로 자리 잡았다. 반공 이데올로기는 교육뿐만 아니라 언론을 통해서도 보급되었다. 중화민국의 언론을 통한 반공 이데올로기 선전은 바다를 건너 한국의 화교에게까지 『한중일보』를 통해 전달되었다.

『한중일보』에 나타난 중화민국의 국가 이미지는 반공 의식을 기초로 한 '중국은 오직 하나, 중화민국뿐'임을 강조하는 것이었다. 더 나아가 그것은 중화민국의 '국가 회복' '국가 통일'의 이념을 강조하는 이미지였다. 『한중일보』에는 1990년대 초기까지도 거의 매일 "삼민주의로 중국을 통일하자" "반공하여 나라를 되찾자(反共復國)"는 기사가 실려 있었다. 또한 이러한 '국가 통일'의 이념은 총통과 정부의 관료들의 발언으로 『한중일보』에 보도되었다. 1979년과 1990년의 기사를 예로 들어보자.

행정원장(行政院長) 쑤원췌(孫運璿)는 (……) 우리 나라와 해외

동포의 공통적인 입장을 다음과 같이 밝혔다. 타이완은 중국의 일부분, 중국은 오직 하나, 진정으로 중국을 대표하는 것은 중화민국뿐이다. 우리는 반공복국(反共復國)이라는 최고의 국책(國策)을 계속 이어나갈 것이며 다른 어떤 공산 국가와도 교섭하지 않을 것이다. (……) 우리의 국책은 절대 변하지 않는다. (1979. 7. 27)

리덩후이(李登輝) 총통은 (……) 20세기는 공산주의가 반드시 멸망할 시기라고 전했다. 리 총통은 "이것은 우리의 신념인 동시에 우리가 계속 노력해나갈 목표"이며, "공산주의와 그 독재 정권에 반대하는 것은 중화민국이 수십 년간 변함없이 지켜온 기본 국책"이라고 강조했다. (1990. 1. 25)

이와 같이 총통과 정부의 고위 관료들의 확고한 중화민국의 입장이 『한중일보』를 통해 한국 화교에게 전달되었다. 그러나 리덩후이의 또 다른 발언은 위의 것과는 모순되는 것이었다.

리덩후이 총통은 어제 숙연한 자세로 "타이완에 발붙여, 대륙을 배려하며, 세계를 바라보자"고 지적했다. 이것은 슬로건이 아니라 "우리는 국가 회복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실제로 행동하고 있으며, 자신도 있다"고 밝혔다. (1990. 3. 6)

리덩후이의 "대륙을 배려하며"라는 표현은 중국 대륙을 시야에 둔다는 뜻으로 중국 대륙을 포함한 중화민국이라는 기존의 중화민국 정부의 주장을 이어받고 있다. 한편 "타이완에 발붙여"라는 주장은 종래의 중화민국의 태도와는 다른 것으로 정부의 기반을 중국 대륙에 둔다는 것을 고집하지 않겠다는 의기를 내포하고 있다. 이러한 리덩후이의 발언은 교묘하게 타이완과 대륙을 동시에 인정하

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한중일보』에서 리덩후이의 이미지는 예전 총통과 똑같이 '국가 통일'을 지향하는 지도자로만 보도되었다. 『한중일보』에 보도되는 주한 중화민국 대사의 발언 또한 이러한 리덩후이의 이미지를 강화하는 것이었다.

진수지(金樹基) 주한 대사는 중화민국의 신년 축사에서 다음과 같이 밝혔다. 국가 정세가 크게 변화하는 속에서 우리 나라는 리덩후이 총통의 현명한 지도 하에 전국 군민(軍民) 동포가 공동으로 노력분투, 자력자강(自力自強)하여 국력이 날로 강화되고 있다. 동시에 중공, 북한과 같은 공산 정권의 존재는 이미 종말에 접어들어 평화로 전환될 날이 머지않았다. 중국의 통일 또한 자유·민주·평등의 제도 하에서 완성될 것이다. (1990. 1. 3)

이처럼 『한중일보』에서는 '국가 통일'을 향해 달려가고 있는 중화민국의 이미지만이 선전되었다. 총통, 정부 고위 관료가 '국가 회복' '국가 통일'의 이념을 주장함으로써 중화민국 국내의 분위기를 파악하기 힘든 위치에 있는 한국 화교는 그것이 허황된 주장이 아닌 실현 가능한 논리로 다가왔을 것이다.

한국 화교가 타이완만을 영토로 하는 중화민국을 '조국'으로 느낄 수 있었던 것은 "중국은 오직 하나 중화민국뿐"이며, "타이완은 중국의 일부"이며, "중화민국은 중국 대륙을 포함한다"는 중화민국의 주장을 믿었기 때문일 것이다. 『한중일보』는 이러한 중화민국의 입장을 전달하는 역할을 담당해 한국 화교가 중화민국과 정치적 연대감을 형성할 수 있도록 기여했다.

#### 4. 영원히 조국을 사랑하라: 『한중일보』를 통해 본 한국 화교의 '애국 행위'

한국 화교는 중화민국이 발신하는 국가 이미지를 받아들여 중화민국을 '조국'으로 인식함과 동시에 '애국심'을 갖게 된다. 이러한 '애국심'이 어떤 식의 '애국 행위'로 나타나게 되는지를 『한중일보』를 통해 살펴보고자 한다. 중화민국과 미국의 단교, 그리고 한국과 중화민국이 국교를 단절했을 때 한국 화교가 취한 행동을 중심으로 검토해보고 싶다.

1970년대 이후 한국 화교가 중화민국에 대한 신뢰성을 잃어버릴 지도 모르는 두 개의 큰 사건이 일어난다. 그 중 하나가 바로 '중(중화민국)미 단교'이다. 1970년대까지 중화민국이 중국 대륙을 포함한 '중국'을 대표하는 국가로서 국제 사회에서 인정을 받아온 것에는, 그 뒤에 미국의 지지가 있었기 때문이었다. 유엔(국제연합)에서 중화민국의 중국 대표권을 지지하는 등, 미국은 선두에 서서 중화민국의 국제적 지위를 지켜왔다. 미국이 이렇듯 중화민국을 옹호한 것은 동아시아의 냉전 체제가 그 원인이었다.

중국 대륙에서 일어난 국공내전의 대세는 1949년 8월에 이미 중국 공산당 쪽으로 기울어졌다. 같은 달 미국은 사실상 국민당과 관계를 단절하는 선언인 '중국 백서'를 발표했다. 뿐만 아니라 미국은 1950년 1월에 타이완과 한국을 제외한 서태평양 방어 라인을 발표했다. 그와 동시에 중국 대륙에서는 공산당에 의한 '타이완 해방'의 준비가 착착 진행되고 있어, 중화민국은 이 세상에서 사라질 운명에 처해 있었다.<sup>13)</sup>

13) 若林正文, 『臺灣—分裂國家と民主化』(東京: 東京大學出版會, 1992), pp. 67~68.

이러한 중화민국의 운명을 구한 것이 바로 한국전쟁이었다. 한국 전쟁으로 타이완의 전략적 위치의 중요성이 재인식되면서 미국은 타이완 문제 불가입 방침을 철회하고 중국 공산당으로부터 타이완을 방위하기로 결정한다. 이렇듯 국공내전이 동아시아 냉전 체제에 밀려들면서 중화민국 정부는 존속해나갈 수 있게 됐다.<sup>14)</sup> 아시아에서 중화인민공화국의 영향력이 높아짐에 따라 공산 세력 확장을 저지하기 위해 미국은 국제적으로 중화민국 정부를 중국의 대표자로, 그 '정통성'의 지위를 지켜나갈 수밖에 없었다.<sup>15)</sup>

그런데 1970년대에 들어서면서 미국과 중화인민공화국의 대립 관계가 호전되기 시작하면서 중화민국의 국제적 '정통성'은 위기에 직면하게 된다. 새롭게 미국 대통령에 당선된 닉슨은 미국의 대중국 정책을 대립에서 공존으로 전환했다. 중화민국은 이전과 같은 미국의 지지를 기대할 수 없게 됐음은 물론, 유엔에서는 중화인민공화국의 중국 대표권을 지지하는 나라가 해를 거듭할수록 증가해 갔다. 결국 1972년 유엔 총회에서 중화인민공화국을 승인하게 되고, 중화민국은 유엔 탈퇴를 선언한다.<sup>16)</sup> 1972년 2월에는 닉슨이 중화인민공화국을 방문해 '상하이 코뮌iqué'를 발표해 미국이 중화민국을 지지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밝혔다.<sup>17)</sup> 결국에는 1978년 12월 16일 중화인민공화국과 국교를 수립하면서 미국은 중화인민공화국을 유일한 합법적인 중국 정부로 인정했다.

14) 若林正文, 앞의 책, pp. 68~72.

15) 아시아 각국의 공산주의 세력의 활동은 중화인민공화국의 물심양면의 지원으로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았다. 김일성의 북한이나, 호치민의 월북(북베트남) 전립 이후 중화인민공화국이 끼치는 영향은 소련에 필적하거나, 그 이상으로 거대한 것이었다. 國分良成, 「東アジアにおける冷戦とその終焉」, 鴨武彦, 『アジアの國際秩序—脱冷戦の影響』(東京: 平凡社, 1993), p. 46.

16) 翁松燃, 「米國との關係」, 載國輝, 『もつと知りたい臺灣』(東京: 弘文堂, 1986), p. 278.

17) 翁松燃, 앞의 글, p. 279.

중화민국의 국제적 지위가 추락해 국제적으로 고립됐음에도 불구하고 한국 화교의 중화민국에 대한 충성심은 흔들리지 않았다. 한국 화교는 '중미 단교'가 전해지자마자 중화민국 정부에게 전문을 보내 충성을 맹세한다. 그 전문의 내용을 『한중일보』를 통해 살펴보자.

미국과 공비가 내년 1월 1일부터 국교를 수립하는 동시에 중화민국과 외교 관계를 단절한다는 소식이 전해왔습니다. 우리 한국 화교 전체가 이 소식을 접한 후 극도의 분노를 감추지 못하고 이구동성으로 미국이 신의를 저버리고 공비의 비위를 맞춘다고 규탄하고 있습니다. 국제 정세가 어떻게 변화하더라도 우리 교포 전체는 정부의 기본 국책(國策)을 지지하며 장 총통(蔣介石)의 지도에 따라 반공복국(反共復國)의 대업을 이룩할 것입니다. (1978. 12. 20)

한국 화교는 충성을 맹세함과 동시에 위기에 처한 '조국'을 돕기 위해 '애국 모금 운동'을 전개한다. 이 운동은 한국 전체 화교 사회에 퍼져나간다. 여기서는 대구 화교의 예를 보기로 하자.

대구화교협회는 전체 이사(理事), 감사(監事)와 각 기관의 대표를 소집해 긴급 회의를 개최했다. [……] 회의에서 미국과 공비가 국교를 수립하고 동맹국을 배신한 것에 대해 극도의 분통함을 표했다. 정부에게 지지를 표시하고 국방(國防) 모금 운동에 호응하기 위해 그 자리에서 모금 열기가 달아올라 278만 원의 모금이 거뒀다. [……] 최근에는 각 화교상회, 청년회, 부녀회, 초중고등학교의 교생들 사이에서도 모금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1979. 1. 1)

'중미 단교' 직후 중화민국 국내에서는 '자강애국(自強愛國) 운

등이 일어났으며 한국 화교 사회에서는 '애국 모금 운동'이 전개되었다. 『한중일보』에 의하면 이 같은 한국 화교의 모금 운동은 1979년 5월까지 계속되었다.

'중미 단교'로 인해 국제적으로 중화민국의 '정통성'을 인정받지 못하게 되어도 한국 화교에게는 중화민국만이 '정통적'인 중국 정부라는 사실은 변함이 없었다. 어려움에 처해 있는 국가를 돕는 것이 국민의 의무인 양 한국 화교는 '애국 모금 운동'을 펼쳐, '조국'에 대한 '사랑'과 '반공 의지'를 중화민국 정부에게 전했다.

그후 중화민국의 신뢰성에 관계되는 두번째 사건이 발행하게 되는데, 그것이 바로 '한중(중화민국) 단교'이다. 중화민국이 국제적으로 국가로서 인정받지 못해도 한국에서는 공식적으로 '정통적'인 중국 정부로 인정을 받고 있었기 때문에, 한국 화교는 추락한 중화민국의 국제적 지위를 실감할 수 없었을지도 모른다. 그러나 1992년 8월 한국은 중화민국과 국교를 단절하고 중화인민공화국과 국교를 수립함으로써, 중화인민공화국을 유일한 중국 정부로 인정했다. '한중 단교'는 한국 화교에게 중화민국의 국제적 지위의 변화를 실감할 수 있는 충격적인 사건이 될 수도 있었다. 그러나 한국에서조차 중화민국의 '정통성'이 사라졌지만 한국 화교가 중화민국을 지지하는 현실은 바뀌지 않았다.

한국과 중화민국의 국교가 단절되던 날 서울의 중화민국대사관에서는 국기 하강식이 거행되었다. 거기에 참가한 화교들의 모습이 『한중일보』에 기록되어 있다. 화교들은 흘러내리는 눈물 때문에 목이 메어 국가를 제대로 부를 수 없었다. 그날 화교들은 청천백일기(靑天白日旗: 중화민국의 국기)를 흔들며 중화민국 만세를 한없이 외쳤다. 또한 그들은 '한중(중화인민공화국) 국교 수립'에 반대 입장과 분노를 나타내기 위해 "영원히 중화민국을 사랑하리라" "한국 정부의 정의는 죽었다" "공산주의 결사 반대"라고 쓴 플래카드를

들고 식전에 참가했다(『한중일보』 1992, 8, 26일자 참조).

'한중 단교'에 대맞춰 중화민국의 교무위원회(僑務委員會: 화교의 업무를 담당하는 정부 기관)의 관료가 한국을 방문해 한국 화교 대표와 좌담회를 가졌다. '한중 단교'에 의한 변화에 대비해 좌담회에서 한국 화교 대표가 중화민국 측에 제시한 요구가 『한중일보』에 기재돼 있다. 한국 화교 측이 제시한 요구는 다음과 같다. ① 한국 정부와 교섭할 때 대사관 명의로 된 화교 소학교의 토지를 포함해 화교의 권익을 위해 노력해줄 것. ② 화교가 귀국하기 쉽게 수속 절차를 간략화해줄 것. ③ 중화민국의 화교 참정권을 보호할 것. ④ 타이완 독립분자의 위험한 활동을 저지할 것. ⑤ 양안(兩岸: 중화인민공화국과 중화민국) 인민의 교류 등 대륙 정책을 강화할 것. ⑥ 총통 직선에 반대함. ⑦ 국적을 '타이완'이 아닌 '중화민국'으로 할 것. ⑧ 한국부녀반공연합회 한국분회(韓國婦女反共連合會韓國分會)의 지원을 강화할 것.

한국 화교가 내놓은 이상의 요구에서 한국 화교가 타이완 독립에 무척 부정적인 태도를 취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리고 대륙 정책을 강화하라는 요구에서 한국 화교는 대륙을 늘 염두에 두고 있음을 짐작할 수 있다. 또한 국적을 '타이완'이 아닌 '중화민국'으로 해달라는 요구에서 한국 화교가 지지하는 것은 어디까지나 타이완이 아닌 중화민국인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화교 학교의 교장, 교사를 중심으로 결성된 한국 화교의 전국 연합 조직인 한화교사연의회(韓華教師聯誼會)는 한국 정부를 향해 연합 성명을 발표했다. 그 내용 또한 『한중일보』에 기록되어 있다.

한국이 경솔히 중공과 국교를 수립하는 것은 중국 인민의 고통을 가중하는 행위이며 세계의 흐름과는 상반되는 처사로, 결코 현명한 선택이라 할 수 없다. (……) 한국 정부가 화교 정세에 순응하고 정

의를 수호해, 우리 화교 학교 전체가 기존의 상황을 유지해 독립 자주적으로 중화민국의 국기를 게양하고, 중화민국의 국기를 부르며, 중화민국 정부가 제공하는 자유 민주의 교과서도 수업함으로써, 우리 화교 자체가 언제까지라도 이러한 교육을 받을 수 있게 해주기를 희망한다. 이것은 우리 한국 화교 교사 전체의 일치된 요구이다. (1992. 9. 16)

물론 이러한 한국 화교의 '애국 행위'는 중화민국 정부 관료의 선동에 의해 일반 화교가 동원된 결과인지도 모른다고 추론해볼 수 있다. 그러나 주목할 필요가 있는 것은 이러한 '애국 행위'에 동원되면서도 그에 반대하는 의견이 제시된 적이 없다는 점이다. 한국 화교의 지도자들 또한 중화인민공화국과 중화민국 사이에서 아무 분열 없이 중화민국을 선택해 지지를 보냈다.

한국과 중화인민공화국의 국교가 수립되어도 중화인민공화국으로 국적을 바꾼 한국 화교도 없었다. 1992년 '한중 국교 수립'이라는 커다란 파도를 넘었어도 한국 화교 사회는 이전과 다른 모습을 찾아볼 수 없었다.

## 5. 깨어진 조국의 꿈: 2000년 타이완 총통 선거

『한중일보』에서 한국 화교의 중화민국에 대한 태도가 변화하기 시작한 것은 2000년 타이완 총통 선거 이후부터이다.

중화민국 진국 이래 조선 화교와 화교 학교를 중화민국 영사관에서 관리해왔기 때문에 한국 화교와 국민당과의 관계는 식민지 시대까지 거슬러 올라간다. 중화민국이 대륙에 있었던 시절의 '정통성'을 보존하는 것은 한국 화교에게는 무척 큰 의미를 갖는다. 쑨원(孫

文)이 중화민국을 세웠고, 장제스(蔣介石)가 그 뒤를 이어, 장징궈(蔣經國)로 계승된 중화민국의 '정통성'은 한국 화교가 중화민국을 지지하는 근본적인 원인이었다. 또한 대륙 시절의 '정통성'은 국민당에 의해 지켜지고 있다고 한국 화교는 믿고 있었다. 따라서 국민당을 지지하는 것은 바로 중화민국을 지지하는 것을 의미했다.

그런데 1987년 타이완에 선포되었던戒嚴령이 해제되면서 타이완에는 '본토화'라고 일컬어지는 '타이완 내셔널리즘'이 빠른 속도로 형성되어갔다. 더불어 '타이완 독립'을 주장하는 목소리 또한 커져갔다. 중화민국의 민주화는 '타이완화'를 향해 발전해갔다. 생각지도 않은 방향으로 변해가는 중화민국을 지켜보며, 불안함을 느끼면서도 중화민국이 대륙의 '정통성'을 보존하고 있는 만큼 한국 화교는 중화민국에 계속해서 지지를 보냈다.

장제스에 이어 장징궈 총통 시절만 해도 한국 화교의 총통에 대한 지지는 열렬했다. 장제스 사후, 1978년 장징궈가 제6대 총통에 취임했다. 한국 화교는 장징궈 총통의 취임을 축하하기 위해 8백여 명으로 결성된 축하단을 타이완에 파견함(『한중일보』 1978. 5. 19일자 참조)과 동시에 한 달에 걸친 축하 행사가 한국 각지의 화교 사회에서 거행됐다. 장징궈 사후, 1990년 타이완 출신인 리덩후이가 제8대 총통에 취임했을 때에는 거대한 축하 행사는 벌어지지 않았지만 축하 집회를 갖고 리 총통에게 충성을 맹세하는 전문을 보냈다고 『한중일보』는 전하고 있다. 그 전문의 내용은 아래와 같다.

존경하는 리덩후이 총통 각하, 각하는 대통을 이어받아 정부를 통솔하고, 어진 정치로 국민에게 은혜를 베풀어 모두의 마음이 모아졌습니다. 중화민국 제8대 총통·부총통 취임식을 맞이하여 저희 한국 화교는 서울에서 성대한 축하 대회를 거행했습니다. [한국 화교는] 국가에 충성하고 전심으로 [리 총통을] 추대하여, 각하의 지도 하에



단결하여 정부를 지지할 것을 맹세합니다. 그리하여 하루빨리 자유와 평등, 통일의 신중국을 맞이할 수 있기를 기원합니다. (1990. 5. 22)

1992년에는 정·부총통의 2주년을 기념하는 집회도 가졌다고 『한중일보』에 기록되어 있다. (1992. 4. 23, 1992. 5. 19) 한국 화교가 리덩후이에게 지지를 보낼 수 있었던 것은 중화민국의 '정통성'이 쏠원, 장제스, 장징궈, 그리고 리덩후이라는 국민당 당수에게 이어지고 있다고 확신했기 때문일 것이다.

2000년 타이완에서 총통 선거가 실시될 때 한국 화교가 국민당 후보를 지지한 것은 당연한 결과였다. 1999년 2월 국민당 전당 105주년 축하 대회가 한국에서 거행됐을 때 한국 화교는 국민당 후보를 지지할 것을 약속했다(『한중일보』 1990. 11. 26일자 참조). 그러나 한국 화교의 기대와는 달리, 국민당은 무참히 패배했고, 타이완 독립의 대진영이라고 생각되는 민주진보당(民主進步黨)의 천수이볜(陳水扁)이 총통에 당선됐다. 천수이볜이 총통에 취임해도 한국 화교가 축하 집회를 했다거나, 총통에게 충성을 맹세하는 전문을 보냈다는 기사는 『한중일보』에서 찾아볼 수 없었다. 민주진보당이 통치하는 중화민국은 한국 화교에게는 '정통성'을 잃은 중화민국이 돼버렸는지도 모른다.

이렇듯 2000년 타이완 총통 선거를 계기로 한국 화교의 '조국'의 꿈은 깨어졌다. 중화민국이 자신이 생각해왔던 '조국'과는 다르다고 느끼기 시작한 것이다. '조국'의 꿈은 깨어졌어도 금세 '조국'의 꿈을 저버릴 수는 없었다. 총통 선거 후 중국국민당주한직속지부(中國國民黨駐韓直屬支部)가 주최하는 한국지역당원공작좌담회(韓國地域黨員工作座談會)가 개최돼, 거기에서 한국 화교는 당의 이상과 사명을 이어나갈 것을 맹세하고 국민당도 개혁을 추진할 것을

요구했다고 『한중일보』는 전했다(2000. 5. 30). 국민당 서울지부도 당원연말좌담회(黨員年末座談會)를 개최해 총통 선거의 패배 원인을 검토하고 국민당의 경쟁력을 높여나갈 것을 제안했다고 기록돼 있다(2000. 12. 24).

2001년까지도 한국 화교 사회의 국민당 세력은 뿌리 깊게 존재하고 있었다. 총통 선거 패배 후 중화민국 국내의 국민당과 마찬가지로 리덩후이의 비판이 한국 화교 사회에서도 일어났다. 국민당 전당 107주년을 기념하기 위해 축하 연회가 거행됐다. 거기에 참가한 국민당 간부인 한 한국 화교의 발언에 주목해보자.

장궈(장징궈: 蔣經國) 선생이 서거한 후, 우리는 덕도 없고 무능한 지도자를 만나 국가 경제는 하락하고 치안은 어지러워져, 국민당은 사분오열되는 결과를 가져왔다. 심지어는 자신이 중국인이라는 것도 인정하지 않고 중국 국민당을 외래 정권이라고 질책하고 있다. (……) 총통 선거 실패 후 반성할 생각은 안 하고 정당 교체, 평화적인 정권 교환 등등 무책임한 발언을 계속하고 있다. 이런 지도자를 우리 충실한 당원 전체가 몰아내지 않으면 중국 국민당은 정말로 멸망할 것이다. (2001. 11. 25)

위의 발언에서 리덩후이의 이름은 거론되고 있지 않지만 리덩후이를 비난하고 있는 것만은 분명하다. 민주진보당에 대한 비난은 있어왔지만 2000년 타이완 총통 선거 이전까지 『한중일보』에서 리덩후이를 비난한 기사가 게재된 적은 없었다. 그전까지 리덩후이는 '국가 통일'을 지향하는 총통으로만 보도돼왔기 때문이다.

이러한 리덩후이를 비난하는 발언은 그가 국민당 간부였기에 가능하다고 생각할 수도 있다. 그러나 주목해야 할 것은 한국 화교 사회는 국민당 외 다른 정당을 지지한 적이 없다는 사실이다. 한국 화

교 사회에서 국민당 외 다른 정당이 정치 활동을 펼친 적도 없었다. 그리고 한국 화교의 지도자들이 모두 국민당 당원이라는 점을 감안한다면 위와 같은 발언에 찬동하는 한국 화교도 적지 않았을 듯하다.

이와 같이 한국 화교는 중화민국의 상실감에서 금방 일어설 수는 없었다. 그러나 국민당의 뿌리 깊은 중화민국에 대한 미련을 갖고도 한국 화교 사회는 변화해가고 있다. 중화민국이 생각해왔던 '조국'과는 다르다는 것을 한국 화교도 점차 실감하고 있다. 그러한 변화를 『한중일보』에서도 느낄 수 있다. 반공주의 이데올로기 성향이 강하게 느껴졌던 『한중일보』는 1990년대에 들어서면서 그 색채가 연해졌다. 2000년 총통 선거 후에는 중화민국 국내의 기사도 줄어들었다. 그 대신 중화민국 정부가 중국 문제에 어떤 태도를 취하고 있는가에 관한 기사가 신문의 중심이 되었다. 중화민국 국내의 신문을 통해서이기는 하지만 중국 대륙에 관한 기사도 『한중일보』에서 볼 수 있게끔 되었다.

## 6. 한국 화교, 그 정체성의 특성

여기까지 『한중일보』의 기사를 살펴본 바와 같이, 한국 화교는 중화민국에 강한 집착을 가지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렇듯 한국 화교가 중화민국에 집착하는 원인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한국 화교가 지닌 정체성의 특성을 이해하지 않으면 안 된다. 그 정체성의 특성을 아래와 같이 세 가지로 나눌 수 있다고 본다.

### I. 통일된 '중국인 정체성'

중화민국을 '조국'으로 인식하는 한국 화교의 국가 정체성 형성

배경에는 동향 의식에서 발전한 '중국인 정체성'이 밑거름이 됐다고 생각한다. 앞에서 지적한 바와 같이, 한국 화교의 99%가 중국 대륙 출신이며, 그 중 약 90%가 산둥성 출신이다. 같은 방언을 사용하는 같은 지역 출신이라는 점에서 통일된 정체성을 형성하기 쉬웠을 것이다. 같은 산둥성 출신이라는 동향 의식에서 형성된 '중국인 정체성'은 국가 정체성으로 발전하기 용이했을 것이다.

'중국인 정체성' 형성에 또 하나 빼놓을 수 없는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는 것이 바로 화교 교육이다. 앞서 서술한 것처럼 한국의 모든 화교 학교는 중화민국식 교육 체제이다. 중화민국 국내의 학교 교육을 그대로 한국에 옮겨온 듯한 화교 학교 교육은 화교가 생활하고 있는 한국 사회와는 동떨어진 내용이었다. 한국 화교는 화교 학교에서 '중국인' 교사에 의해, 타이완에서 보내오는 중국어로 된 교과서를 읽고, 중국어로 교육을 받으며 '중국인'으로 성장해갔다. 화교 학교의 교육은 '중국식 교육'을 받고, 중국어를 사용하고, '중국인'으로 살아가야 하는 숙명을 화교들에게 인식시켜 '중국인 정체성' 형성에 크게 이바지했다.

또한 한국 화교가 화교 학교에 취학하는 비율은 상당히 높아, 거의 모든 화교가 표준화된 중화민국식 교육을 받았다. 때문에 한국 화교의 통일된 '중국인 정체성'이 더욱 쉽게 형성되었다고 본다. 그리고 화교 학교 교육이 가져온 또 하나 결과는 중국어 읽기, 쓰기 교육이 『한중일보』를 읽을 수 있는 능력을 배양했다는 것이다. 『한중일보』를 통해 한국 화교는 중화민국의 정치 상황을 파악할 수 있었고 이 또한 한국 화교의 '국가 정체성' 형성에 일조했으리라 본다.

### II. 중화민국 국민으로서의 정체성

한국의 거의 모든 화교가 중화민국 국적을 소지하고 있다는 것은

앞에서 지적한 바 있다. 화교가 가장 많이 살고 있다는 동남아시아에는 현지 국적을 소유한 화인(華人)이 대부분을 차지한다. 따라서 그들이 '중국인'으로서의 정체성을 추구할 때에는 말레이시아 국민, 인도네시아 국민이라는 자각 하에서 추구하게 된다. 그러나 한국 화교는 중화민국 국민이라는 입장에서 '중국인'이라는 정체성을 추구하게 된다.

그리고 한국이라는 환경은 한국 화교의 중화민국 국민으로서의 정체성을 강화시킨다. 한국에서 중화민국 국적자라는 것은 비한국인이라는 것을 가리키며, 또한 한국인과의 사이에는 경계선이 그어지게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단일 민족 국가 한국이라는 내셔널리즘은 그 경계선을 확고부동한 것으로 만들어버려 한국 이외의 국민은 항상 그 경계선 바깥에 있는 존재일 수밖에 없다.

2002년부터 조건부로 외국인의 영주권이 인정되기는 했지만, 아직까지 한국 화교의 영주권 취득자는 많지 않다.<sup>18)</sup> 대부분의 한국 화교는 아직도 장기 체류 외국인과 별반 다를 게 없이 '거주'라는 체류 자격으로 한국에 살고 있다. 1997년 전까지만 해도 3년마다 출입국관리국에 체류 연장 허가를 받아야 했고, 그후부터는 매 5년으로 연장은 되었지만, 체류 연장 허가를 받아야 하는 건 마찬가지다. 지금도 한국 화교는 한국에서 출국했다가 입국하는 경우에는 '재입국 허가'를 받아야 하며 재입국 기간 내에 입국하지 않으면 한국의 '거주' 자격을 박탈당한다. 한번 상실한 '거주' 자격을 다시 되찾기는 무척 어렵다. '거주' 자격이 상실되면 여행객과 동일하게 관광비자로 한국에 입국할 수밖에 없다. 그외에도 1962년에는 '외국인 토지 소유 금지령'이 실시돼 한국 화교는 경제적으로 큰 타격을 받았다.<sup>19)</sup> 1968년부터는 50평 이하의 점포용 토지와 200평 이하의 거주

18) 한국 화교가 '영주' 자격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5년 이상 한국 내에 계속 체류해야 하고, 3천만 원의 재산 증명과 신용 보증인이 필요하다.

용 토지를 소유할 수 있게 되었지만 외국인의 토지 제한 제도는 1998년까지 계속되었다.

화교가 이러한 외국인 차별로부터 벗어나고자 귀화하려고 해도 귀화조차 쉽지 않았다. 국회의원이나 법조인 등 저명인사 2명 이상의 추천서와 5천만 원 이상의 재산 증명서가 요구되는 등 까다로운 조건이 붙어 있었기 때문이다.

외국인이 한국에 귀화하는 것조차 부정적인 태도를 취하는 한국 사회에서 화교가 차별에서 벗어날 길은 없었다. 자신은 한국 국민이 아니라 중화민국 국민임을 항상 인식하며 살아야 했고, 배타적인 한국 사회에서 자신에게 직접 전달되는 '국가'의 원조를 기대했을 것이다. 동남아시아의 많은 화인들은 경제적으로 풍요롭고 확고한 기반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조국'의 원조를 기대하지 않는다. 그러나 한국 화교의 경우에는 한국의 차별로부터 '국민'을 지켜주고 권익을 향상시켜줄 '조국'을 기대했을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동남아시아의 화인들이 '문화적 중국'을 추구하는 것과는 달리, 한국 화교는 현존하는 '국가'인 중화민국을 필요로 했던 것이다.

### III. 반공주의를 토대로 한 정체성

『한중일보』에 기재된 한국 화교의 '애국 행위'에서 알 수 있듯이 언론 면에서 반공 의식이 한국 화교에게 깊숙이 침투되어 있었다. 한국 화교가 중화인민공화국을 인정하지 않은 것은 공산당을 괴뢰 정권이라 생각한 반면 중화민국은 '정통성'을 지닌 정부라고 믿었기 때문일 것이다. 한국 화교에게 반공 의식을 침투시킨 원인으로 우선 화교 학교의 반공 교육을 들 수 있다.

전후 중화민국에서는 '반공'이라는 국책과 더불어 반공 교육이

19) 박은경, 앞의 책, p. 126.

실시되었다. 그 내용은 중화민국을 미화하는 한편 공산당이 지배하는 중화인민공화국을 극단적으로 부정하는 '반중화인민공화국 교육'이라고 불릴 만한 것이었다. 중화인민공화국은 중화민국을 지키기 위해 싸워야 할 '적'으로 묘사되었다. 한국 화교는 중화민국 국내와 같은 교과서를 읽음으로써 중화인민공화국을 적으로 인식하도록 교육되었다. 공산당을 '적'으로 간주하는 교육은 한국에서도 실시돼 한국 화교는 반공 교육에 대해 모순을 느낄 수 없었다. 그렇기 때문에 화교는 한국에서 사회적인 차별을 받으면서도 정치적 입장은 문제가 되지 않았다.

한국 화교의 반공 의식을 고조시킨 두번째 원인으로서는 한국의 강력한 '반공 체제'를 들 수 있다. 반공주의는 전후 형성된 분단 국가 구조 속에서 한국 정부의 일관된 국가 방침이었고, '공산당'은 한국에서는 받아들이기 힘든 존재였다. 그러므로 한국이 중화인민공화국과 국교를 수립하게 된 1992년 전까지는 한국에서 중화인민공화국 세력은 완전히 배제되었다. 한국 정부는 한국 화교가 중화인민공화국과 접촉할 수 있는 길을 철저히 차단함으로써 한국 화교 사회에서 중화민국 세력만이 존재할 수 있게 했다. 한국 화교의 국적도 중화민국만이 인정되었고, 이것은 선택의 여지가 없었다.

한국 사회에서는 공산당이 절대적 '악'으로 규정되었고, '반공'이 '일체 사회적 가치를 초월한' 가치 판단 기준으로 작용했다.<sup>20)</sup> 반공주의는 한국에서 거대한 사회적 구속력을 지니고 있었다. 한국이라는 강력한 반공 체제 국가에서 살아가는 한국 화교였기 때문에 반공주의는 가치 판단 기준으로 작용해 공산당 정권인 중화인민공화국을 '조국'이라고 인정할 수 없었을 것이다. 한국과 타이완의 반공

20) 자세한 한국 반공주의 기능에 관한 연구는, 권혁범, 「반공주의 회로판 읽기 — 한국 반공주의의 의미와 체계와 정치 사회적 기능」, 조한혜정·이우영, 『달본단 시대를 열며 — 남과 북, 문화 공존을 위한 모색』(삼인, 2000), pp. 29~65 참조.

주의가 한국 화교 내부에서 공명을 일으켜 반공주의가 올바른 가치관이라고 느끼게 했던 것이다. 반공주의는 한국 화교의 내부 결속력을 강화하는 원동력으로도 작용했다.

## 7. 존재하지 않는 상상의 '조국'

한국 화교는 역사적 과정 속에서 형성된 '중국인 정체성'을 토대로 중화민국 국민으로서 중화민국을 지지해왔다. 그 지지의 근원이 되었던 것이 바로 한국 화교 속에 깊게 뿌리 박은 '반공주의'였다. '반공주의'에 기인하여 한국 화교는 중화민국이 '하나의 중국'을 대표하는 '정통성'을 지닌 국가라고 믿어왔다.

그러나 중화민국의 '정통성'은 냉전 구조 속에서 미국에 의해 지켜져온 것에 불과했다. 타이완에서조차 그 '정통성'을 지켜나가기 위해 중화민국 정부는 '중국'을 국민에게 가르치며 '중국인'으로 교육해가지 않으면 안 되었다.

중화민국의 '정통성'은 냉전 체제 하에서 만들어진 것에 불과했다. 중화민국의 '국가 회복'의 주장은 실현 불가능한 것이었다. 미국의 지원이 없이는 중국 대륙을 공격해 국토를 회복한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고, 미국은 그것을 도와줄 의도가 전혀 없었다. 미국은 한국전쟁 발생 후 타이완을 보호하기 위해 제7함대를 파견했지만, 그와 동시에 중화민국 정부에게 대륙에 대한 일체의 공·해상 공격 중지와 대륙을 반격하는 어떠한 군사 행동도 중지할 것을 요구했다. 이렇게 해서 타이완 해협은 중립화되었고, 중화민국에 의한 '국가 통일'도 중화인민공화국에 의한 '타이완 해방'도 불가능해졌다.<sup>21)</sup>

21) 若林正丈, 앞의 책, pp. 70~71.

한국 화교는 타이완에서 보내온 교과서와 『한중일보』를 읽으며, 타국에서 조국다운 중화민국을 상상했을 것이다. 중화민국 정부는 타이완인을 중국인으로 만들기 위해 '중국인화 교육'을 실시했다. 이러한 교육은 화교 학교에서도 이루어졌다. 한국 화교는 타이완인과 똑같은 교육을 받고, 『한중일보』를 읽어가며, 타이완에 있는 자신과 같은 중국인 동포의 이미지를 상상했을 것이다.

베네딕트 앤더슨은 말한다. "민족은 본래 제단되고 주권을 가진 것으로 상상되는 정치 공동체이다. 민족은 가장 작은 민족의 성원들도 대부분의 자기 동료들을 알지 못하고 만나지 못하며 심지어 그들에 관한 이야기를 듣지도 못하지만, 구성원 각자의 마음에서 서로 친교 communion의 이미지가 살아 있기 때문에 상상된 것이다 (강조는 인용자)." <sup>22)</sup> 또한 인쇄 자본주의가 상상의 공동체인 국민을 형성하는 데 끼친 영향을 다음과 같이 설명한다. "이 인쇄물을 통하여 연결된 동료 독자들은 세속적이며 눈에 보이지 않는 특성의 민족으로 상상된 공동체의 짝을 형성하였다." <sup>23)</sup>

한국에서 중화민국의 국민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한국 화교는 교과서와 신문을 매개체로, 타이완에 있는 사람들과 만나거나 이야기해보지 못해도 타이완에 있는 동포가 자신과 같은 생각을 지니고 있으리라고 믿어왔다. 그러나 중화민국 국내에는 교과서와 신문에 묘사되지 않은, 한국 화교가 알지 못하는 '타이완'이 존재하고 있었다. 타이완은 1890년도 말부터 중국에서 떨어져나가 약 50년간 일본 통치를 받게 된다. 일제 통치 하의 타이완에서는 지배자인 일본인에 대비해 피지배자인 '본도인(本島人)'으로서 '타이완인 정체성'이 형성되지만, 이것은 결코 자신이 중국인임을 부정하는 정체성

22) 베네딕트 앤더슨, 윤형숙 역, 『상상의 공동체—민족주의의 기원과 전파에 대한 성찰』(나남출판, 2002), p. 25.

23) 베네딕트 앤더슨, 앞의 책, p. 73.

은 아니었다.

'타이완인 정체성'을 결정적으로 '중국인 정체성'과 다른 방향으로 이끈 것이 바로 1947년 발생한 '2·28 사건'<sup>24)</sup>이다. '2·28 사건'으로 타이완의 일반 민중과 지식인, 사회 엘리트들이 말살되자 타이완인은 대륙에서 온 '중국인'에 대해 쌓였던 감정이 폭발하게 되고, 타이완인은 반중국인 감정을 자각하게 된다. 이러한 자각이 '타이완인 정체성'을 '중국인 정체성'을 부정하는 방향으로 이끌었다. '조국'으로서 환영한 정부는 일본 정부와 같이, 아니 오히려 더 '지배자'의 모습으로 타이완인을 탄압한 것이다. '2·28 사건' 이후에도 타이완에는 이른바 '백색 공포'로 불리는 국민당 정부의 탄압 정책이 계속되었다.

자각된 '타이완인 정체성'은 '백색 공포' 속에서 침묵하고 있을 수밖에 없었다. 한국 화교는 중화민국에서 보내오는 한정된 정보를 통해 '조국'의 상황을 파악할 수밖에 없었기 때문에 타이완 내부에 잠재해 있는 '타이완인 정체성'을 느낄 수가 없었다. 느낄 수 있었다 해도 그것이 심각한 문제라고는 이해할 수 없었을 것이다. 타이완에서 떨어진 한국에 살고 있는 한국 화교는 타이완인의 고통과 그 역사에 공감할 수 없었으며, 타이완이 중국에서 떨어져 나가려

24) 타이완 주민에 의한 반국민당 운동. 1945년 10월 국민당 정부는 일본 식민지 당국으로부터 타이완 통치권을 넘겨받았다. 타이완 주민은 '조국'에 반환된 것을 기뻐하며, 국민당 정권을 환영했다. 그러나 타이완인이 타이완성 정부(臺灣省政府)의 요직에서 배제되고, 일본인 재산 접수를 둘러싸고 부정이 횡행하며, 대륙 출신의 관료·병사가 무능하고 규율을 지키지 않아 사회가 혼란해졌다. 더욱이 악성 인플레가 발생하여 타이완 주민의 불만은 급증했다. 47년 2월 27일 타이베이 시내에서 무허가 담배 상행위 단속을 둘러싸고 분쟁이 일어나, 28일 타이베이 시내에서 항의 데모가 시작됐다. 군은 데모대를 향해 발포하고, 이것을 계기로 폭동이 일어났다. 3월 8일 중국 대륙에서 지원군이 도착해 무차별 학살로 데모는 진압되었다. 1987년 계엄령이 해제되고 민주화가 진행되기 전까지 '2·28 사건'을 언급하는 것은 금기였다.

고 하는 '타이완인 정체성'을 환영할 수만은 없었을 것이다.

그러나 타이완 내부의 상황은 한국 화교가 바라는 대로 전개되지는 않았다. 중국 대륙으로 되돌아갈 길이 없었던 중화민국 정부의 타이완 정착화는 피할 수 없는 길이었다. 국민당 정부는 처음에는 탄압적인 수단으로 타이완인을 '지배'하며 통치 기반을 잡아갔지만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타이완인의 지지를 구하지 않으면 안 되었다. 장징궈 시대부터 이러한 경향이 나타나고 있었다.<sup>25)</sup> 계엄령 해제 후 '민주화'라고 불리는 중화민국 정부의 '타이완화'는 타이완의 주체인 타이완인이 바라는 한은 피할 수 없는 길이었다. 이렇게 '타이완화'가 진행되면서 잠들어 있던 '타이완인 정체성'이 눈을 뜨기 시작해 '타이완 독립'을 주장하기에 이른 것이다.

타이완인이 중화민국의 '타이완화'를 바라는 것과는 달리 한국 화교는 중화민국을 '분단 국가'의 형태로 생각하고 있었다. 냉전 체제 하에 존재한 서독과 동독, 월남과 월북, 한국과 북한과 동일하게 중화민국과 중화인민공화국을 분단 국가로 여긴 것이다. 하나의 민족이 분단된 국가는 통일되어야 한다고 한국이 주장하는 것처럼, 한국 화교는 중화민국에 의해 중국 대륙이 통일되기를 바라고 있었다.

하지만 그것은 타이완인이 바라는 국가의 미래와는 다른 것이었다. 타이완인은 중화인민공화국과 통일이 실현되어도 억압적인 정치 체제가 계속되는 한 그것을 환영할 수는 없었다. 타이완인의 역사는 국민당 정부가 지배하는 동안 배제되어왔기 때문에 '역사의 주체'가 되고 싶다고 바라는 타이완인은 그것을 실현하기 위해 민주화 운동에 전력을 기울여왔다. 통일 후에도 민주와 자유가 충분히 보장되지 않는 한 통일은 타이완인에게 있어서는 아무런 의미가 없

25) 若林正丈 編著, 「岐路に立った政治體制——權威主義的體制の原型, 變容, 移行」, 『臺灣——轉換期の政治と經濟』(東京: 田畑書店, 1987), pp. 49~50.

었다.<sup>26)</sup>

타이완인이 바라는 국가 형태는 '역사의 주체'가 되는 것이 최우선시되었고, 이것은 한국 화교가 바라는 통일된 국가 형태와는 다른 것이었다. 중화민국을 단순히 분단 국가로만 생각해서는 한국 화교는 타이완인과는 다른 '조국'의 꿈을 꾸고 있었던 것이다. 한국 화교가 '조국'의 꿈에서 깨어나게 된 결정적인 사건이 바로 2000년 총통 선거이다. 천수이볜의 승리는 바로 타이완인의 바람인 '타이완화'의 결과인 것이다.

## 8. 맺음말: 탈냉전과 신세대의 시대

여기서 다시 처음 부분에서 거론한 한국 화교가 지닌 '조국'의 딜레마의 문제로 되돌아가보자. 동아시아 전체가 냉전 체제를 유지하고 있었을 때는 한국과 중화민국은 이념적인 동맹국이었고 중화인민공화국은 양국의 적대국이었기 때문에, 한국 화교는 중화민국을 '조국'으로 인식하는 데 아무런 문제도, 모순도 발생하지 않았다. 한국 화교가 중화민국 국적이라는 것에 의문을 제기하는 한국인 또한 없었을 것이다. 중화민국 내부도 '타이완인 정체성'이 억압돼 밖으로 표출되지 않았기 때문에, 한국 화교는 '조국'의 딜레마에 빠지는 일도 없었다. 타이완은 중화민국에 의해 이념적으로 잘 포장되어 있었기 때문이다.

문제는 동아시아 냉전의 '얼음'이 녹기 시작하면서 발생하기 시작한다. 한국 화교가 '조국'이라고 인식해왔던 중화민국은 1970년대부터 국제적으로 고립되기 시작하면서 1980년대에는 국가로조차

26) 松永正義, 「『中國意識』と『臺灣意識』——搖れ動く中國/臺灣イデオロギーの構圖」, 若林正丈 編著, 앞의 책, pp. 328~32.

인정받지 못하게 되었다. 그러나 한국에서는 중화민국이 합법적인 중국 정부로 인정을 받고 있었기에 한국 화교는 중화민국을 '조국'으로 고수할 수가 있었다. 그러나 한국에서도 냉전 체제가 금이 가기 시작한다. 한국이 1992년에는 중화민국을 버리고 적대국이었던 중화인민공화국을 합법적인 중국 정부로 인정함에 따라 한국 화교의 '조국'은 딜레마에 빠지게 된다. 한국은 이제껏 훌륭히 중화인민공화국의 영향력을 차단해 한국에서의 '중국'은 중화민국의 요소밖에 인정되지 않았었다. 그러나 이제 한국에서 중화인민공화국의 요소도 인정되기 시작했다. 중화민국보다 더 강력한 주류로 인정되기 시작한 것이다.

그러나 한국 화교 사회 속에 뿌리내린 중화민국의 영향력이 워낙 거대한 것이었기 때문에 한국 화교는 한중(중화인민공화국) 수교 후에도 금세 중화인민공화국을 인정하지는 않았다. 비록 자신의 고향이 대륙일지라도 정치적인 입장에서 그 세력을 부정하고 있었다. 그러나 1990년대 후반부터 중화민국이 변하기 시작했다. 타이완에서 진행되는 급속한 '본토화'와 '타이완화'는 한국 화교에게는 너무 낯설고, 이질감을 안겨주기에 충분한 것이었다. '조국'이라고 찾아간들 대륙 출신인 한국 화교는 성지원티(省籍問題)<sup>27)</sup>에 휘말려 와이성련(外省人) 취급을 받든지, 아니면 한국인으로 취급받기 때문이다. 타이완에서 한국 화교는 주류인 타이완인에 비해 비주류가 될 수밖에 없다. 타이완인이 주로 사용하는 '민난어(閩南語)'가 이제는 타이완 어디에서도 사용되는 주류 언어로 자리 잡아가고 있지만

27) '2·28 사건'으로 인해 반중국인 감정을 자각하게 된 타이완인들은 종전 후 국민당 정부와 함께 온 대륙 출신의 중국인을 와이성련(外省人)이라 부르며, 자신들은 번성련(本省人)이라 칭하게 된다. 소수의 와이성련 집단이 정치적인 권력 하에서 우위를 차지하고 있었지만 타이완이 '본토화'되면서 번성련 집단이 기세를 잡게 된다. 번성련과 와이성련, 이 두 집단의 갈등을 '성지원티(省籍問題)'라고 한다. 타이완에서 '성지원티'는 선거 때 곧잘 표면화된다.

'민난어'를 구사할 수 없는 한국 화교는 거기서 또 다른 이질감을 맛봤을 것이다.

한중 수교와 중화민국의 변질은 한국 화교에게 정체성의 혼란을 안겨주기에 충분했다. 거기에 중화인민공화국의 변신은 더더욱 한국 화교의 정체성을 혼돈으로 몰아넣었다. 사회주의 국가였던 중화인민공화국은 자본주의를 도입해 경제가 눈부시게 성장하고 있다. 한국 화교도 1990년도부터는 대륙을 방문하기 시작해 그 경제의 도약을 몸으로 실감하게 된다. 중화민국의 변질과 더불어 중화인민공화국의 변신은 한국 화교에게 '조국'의 딜레마를 한층 더 느끼게 한다. 한국 화교가 중국 대륙 출신이라는 점에서 더욱 중화인민공화국과는 떼려야 뗄 수 없는 관계에 빠져든다.

한국 화교의 정체성에 혼란을 가중하는 또 하나의 요인은 한국에 있다. 한국에서 외국인에 대한 배타적인 규제가 차츰 풀리게 된 것이다. 규제 완화가 외자 획득 차원에서 시작되었지, 결코 화교를 고려해서는 아니라고 해도 외국인에 대한 한국의 태도는 변화하고 있다. 1998년 이후부터 토지 취득 제한이 철폐되고, 부모 중 한 사람이 한국인이면 한국 국적도 취득 가능하게 되었다. 귀화도 다소 용이해졌다. 이러한 법적 규제가 풀리면서 한국 화교는 정체성 찾기에서 한국을 정착지로 생각할 수 있는 가능성을 발견했다.

한국이 아직도 북한과 대립하고 있는 상황에서 한반도의 냉전이 종식되었다고 단언할 수는 없지만, 분명한 것은 한국 화교의 냉전 시대는 끝났다는 것이다. 중화민국은 더 이상 분단 국가가 아니라 타이완으로서 거듭나려 하고 있다. 중화인민공화국은 더 이상 중화민국을 지키기 위해 싸워야 할 적이 아니다. 한국 화교의 탈냉전 시대를 맞아 한국 화교는 정체성 찾기라는 고민에 빠져 있다. 한국 화교를 둘러싼 환경, 즉 중화민국·중화인민공화국·한국이 변화해가는 속에서, 한국 화교는 앞으로 한국으로 귀화냐, 중화인민공화국

으로 국적 전환이나, 아니면 현 상태 유지나를 두고 고민할 것이다.

현재 이들의 고민을 잘 대변해주고 있는 세대가 바로 젊은 신세대들이다. 한국 화교도 점차 세대 교체 시기에 접어들고 있다. 『한중일보』가 대변하는 기성세대에게도 변화의 물결이 몰아치고 있지만, 젊은 세대의 변화 속도는 훨씬 더 빠르다. 2000년 9월의 조사에 따르면 화교 학교에서 한국인 어머니를 둔 학생의 비율은 고등학교가 31.39%, 중학교가 34.91%, 소학교가 52.0%로 학년이 낮아질수록 그 비율이 증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sup>28)</sup> 이것은 한국인과의 결혼이 증가 추세에 있다는 것을 대변한다. 한국인과의 결혼이 증가함에 따라 한국 문화를 보다 친밀하게 느끼는 젊은 세대가 증가해가고 있다.

화교 학교의 교육 시스템은 여전히 중화민국식이고 한국어의 수업도 많지 않다. 그러나 학교의 학생들은 중국어보다는 한국어를 더 잘 구사하며, 사실 많은 화교의 모어는 중국어가 아닌 한국어로 변했다. 중국어는 학교에서 배우는 처지가 돼버린 것이다. 인천 화교 소학교의 경우는 “우리는 중국인, 중국어하기를 좋아한다”는 표어가 학교 정문에 걸려 있다. 중국인이라는 정체성과 중국어를 배양하지 않으면 안 될 정도로 그들의 중국인 의식과 중국어 구사 능력은 저하되어 있다.<sup>29)</sup>

젊은 세대의 화교들이 이처럼 급속히 한국화한 요소 중 하나는 대중 매체의 발달과 컴퓨터의 보급이라고 할 수 있다. 특히 한국 젊은이들의 문화와 교류의 공간으로 자리 잡은 인터넷은 화교의 젊은 층에게도 큰 영향을 끼쳤다. 인터넷 공간에서 채팅, 정보 수집 등에

28) 자료 제공은 한성화교 중·고등학교.

29) 서울에 있는 한성화교 중·고등학교의 경우에도 중국어 능력이 부족한 학생은 방과 후 별도로 중국어 보강 수업을 하고 있다고 한다(2002년 9월 15일 담도경 선생님의 인터뷰).

몰두함에 따라 한국 화교의 한국어 실력은 자연스럽게 늘게 된다. 부모 세대들보다 훨씬 더 많은 한국어 정보 공간에서 사는 신세대의 필연적인 결과인지도 모른다.

화교 학교 졸업 후 한국의 대학에 진학하기를 바라는 학생 수도 점차 늘고 있다. 1980년대까지만 해도 타이완 대학에 진학하는 학생 수가 많았지만, 1990년대 들어서면서 졸업생의 반이 한국 대학에 진학하고, 1990년대 중반부터는 3분의 2가 한국 대학에 진학하고 있다.<sup>30)</sup> 한성화교 중·고등학교는 이에 따라 1997년부터 종전에 1년 코스였던 ‘한국 대학 진학반’을 2년으로 편성해 운영하고 있다.

이들 젊은 세대들이 한국화되어가고 있어도 한국인은 아니다. 이들은 “붕 떠 있는 존재”<sup>31)</sup>라고 자신을 설명한다. 그러나 이들이 사회에 진출하게 되면 더욱 심한 정체성의 혼란을 겪게 될 것이다. 타이완과 대륙에 진출한 이는 ‘조국’의 혼돈과 한국인 취급 때문에, 한국에 남은 이는 외국인이라는 딱지 때문에, 정체성의 혼란을 겪는 동안, 이들의 정체성은 안식처를 찾아 한국·타이완·중국이라는 동아시아를 떠돌게 될 것이다. 이들이 정체성의 혼란을 이겨낸 후 화교의 기성세대가 되어 있을 때 한국 화교의 모습은 분명 지금과는 달라져 있을 것이다.

그 달라진 모습이 어떤 것일지는 아직 예측하기 어렵다. 그러나 이들이 정체성 찾기에서 만일 타이완이든 중국이든 어딘가에 자연스럽게 속할 수 있다면 그곳이 바로 정체성의 안식처가 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꼭 한 곳에 속해야만 하는 것은 아니다. 다원적인 정체성을 지닐 수도 있기 때문이다. 한국에서 태어나고 자란 화교가 타

30) 이것은 한성화교 중·고등학교의 자료 제공에 의해 그 학교의 졸업생을 통계를 한 데이터이다.

31) 자세한 내용은 오명석, 「화교 교육과 젊은 세대의 문화적 감성」, 『당대비평』 19호, 2002년 여름호, pp. 259~71 참조.



이완 국적이라고 해서 한국을 사랑하지 않는 것은 아니다. 한국 화교가 한국 국적으로 귀화했다고 해서 국가와 민족을 저버린 것은 아니다. 국적과 상관없이 한국 화교는 한국인인 동시에 '중국인'일 수 있을 것이다.

한국 화교가 다원적 정체성을 지니기 위해서는 한국의 역할 또한 중요할 것이다. 흑백 논리로 한 사람의 정체성을 구분하는 것이 아니라 흑백이 공존하는 정체성을 인정하고 존중하는 한국의 모습이 필요할 것이다. 한국 화교가 타이완 국적이라고 해서 한국인에서 배제되지 않고, 한국 화교가 한국 국적으로 귀화했다고 한국인임을 강요하지 않는, 다원적 정체성을 받아들일 수 있는 한국이 되어주기를 기대한다.

## 아시아 담론과 '우리들'의 딜레마

손거(孫歌)

작년(1999년) 여름 일본에 체류하고 있던 중, 『讀書』 제8기에 백영서(白永瑞) 선생의 동아시아 문제에 관한 글이 한 편 발표되었다는 말을 들었다.<sup>1)</sup> 지리적인 이유에서였을까, 떨기도 하고 기쁘기도 한 듯한 특이한 느낌을 받았다. 중국에 돌아온 후 찾아 읽어보니, 그 떨고도 가까운 느낌은 더해졌다. 나는 꽤 오래 일본의 근대 이후 아시아 담론의 역사적 맥락을 연구해온 사람이지만 한반도의 사상 자원을 이해하는 데는 익숙하지 않다. 세계화가 거의 하나의 선형적 명제가 된 오늘날, 같은 동아시아 이웃 나라의 사상 자원이 우리 중국인들의 어떤 사고의 맹점을 찢어줄 수 있을지 나는 무척 알고 싶었다. 더욱이 저 '대동아공영권'으로 불리는 전쟁으로 인해, 아시아주의에 대한 일본인들의 복잡한 추구는 동아시아 3국이 어쩔 수 없이 공유할 수밖에 없는 역사 과제가 되지 않았던가. 동아시아 사상에 대한 무관심이 지금의 중국의 지식계 내지 사회에 야기한 마이너스 효과는 우선 제2차 세계 대전에 대한 중국인들의 경박한 태도에서 드러난다. 감정적인 불편함 이외에 인정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은, 일본과 한반도의 근대 이후 사상 역정에 대한 놀랄 만한 무지가 우리 중국인들로 하여금 거의 이 복잡한 역사 단계를

1) 『世紀之交再思東亞』, 『讀書』, 1999년 8월호. (역주)

서남동양학술총서

20

# 주변에서 본 동아시아

정문길·최원식·백영서·전형준 엮음

서남동양학술총서·20

## 주변에서 본 동아시아

펴낸날\_2004년 1월 8일

엮은이\_정문길·최원식·백영서·전형준

펴낸이\_채호기

펴낸곳\_(주)문학과지성사

등록\_제10-918호(1993.12.16)

주소\_서울 마포구 서교동 363-12호 무원빌딩 4층(121-838)

전화\_편집부 338-7224~5 영업부 338-7222~3

팩스\_편집부 323-4180 영업부 338-7221

홈페이지\_www.moonji.com

© 정문길·최원식·백영서·전형준, 2004. Printed in Seoul, Korea

ISBN 89-320-1471-X

ISBN 89-320-1189-3(세트)

엮은이와 협의하여 인지는 생략합니다.

잘못된 책은 바꾸어드립니다.

이 책은 서남재단으로부터 연구비를 지원받아 발간합니다.

서남재단은 동양그룹 창업주 故 瑞南 李洋球 회장이 설립한 비영리 공익법인입니다.

문학과지성사

2004